

칵테일 치료에서 칵테일 예방으로

☞ 지난 8월 멕시코시티에서는 제 17차 국제에이즈회의가 개최되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최초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약 25,000여 명의 에이즈 관련 학자, 단체, 기업, 감염인들이 참가하여 역대 최다를 기록을 수립했다. 본 행사는 멕시코 정부, 국제에이즈협회(IAS), UNAIDS, WHO와 같은 국제 기구 및 전 세계 감염인 연대, 지역사회 관계자, 종교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로 에이즈와 관련한 생의학, 사회과학, 보건학, 인권 등의 각 분야별로 열린 학술발표와 토론 경험의 교류가 이루어졌다.

글 유은주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사업부장

국제 에이즈 회의란?

1985년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현재 IAS(국제에이즈협회) 주도로 격년으로 추진되는 행사이다. 이 회의는 전 지구적인 에이즈 대응에 대한 과학적 연구, 프로그램 실천 현황, 정책현황에 대해 널리 알리고 토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회합의 장이다. 이는 국제적 보건 이슈에 대한 가장 크고 다양한 국제회의이며, 에이즈 확산에 대응하며 배운 교훈을 한 자리에 모아 공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Universal Action Now'이다. HIV/AIDS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는 2010년까지 에이즈 예방, 치료, 간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이 이것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 에이즈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없애는 것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이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세계에 슬로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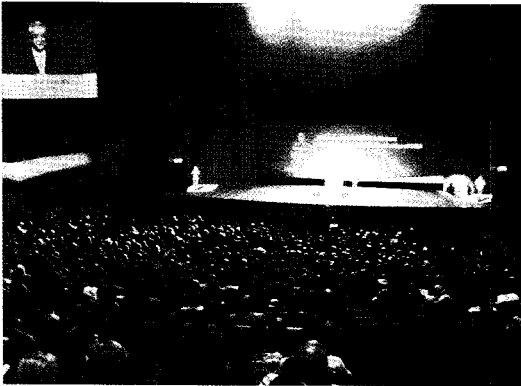
또한 이 주제는 에이즈 확산이 진공상태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개발도상 국가의 보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HIV 감염 위험

및 취약성을 부추기는 사회적 부조리(가난, 성차별, 동성애 혐오)를 밝혀내는 것은 HIV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이다. 'Universal Action Now'는 이러한 대응 노력에 아직까지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올 7월말 발표된 2008년 UNAIDS 최신 HIV/AIDS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증가추세는 2006년 말 자료와 2007년 말 자료를 비교했을 때 신규 감염인 발생 수와 에이즈로 인한 사망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전체 감염인 추정 수치가 20만 명 정도 축소된 집계 결과가 나왔다. 이는 에이즈 감염인의 3분의 2가 집중되어 있는 사하라 이남지역에서 에이즈 예방과 치료 프로그램이 적극 시행된 결과의 반영으로 잠정 해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 단계 에이즈 예방, 치료, 케어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고자 하는 국제적인 노력은 지난 2001년 UNAIDS 특별총회에서 채택한 선언문(Declaration of Commitment on HIV/AIDS)과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목표에서 비교할 때 거의 절반정도 달성된 상태라고 한다.

이러한 결과는 147개국에서 제출한 보고서 근거해 이루어졌는데, 현재 각 국가별로 국제선언문에서 제시한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열심히 추진 중인



국제에이즈회의 개최 현황

2000년 제 13차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2002년 제 14차 스페인 바르셀로나

2004년 제 15차 태국 방콕 ACCESS FOR ALL

2006년 제 16차 캐나다 토론토 TIME TO DELIVER

2008년 제 17차 멕시코 멕시코 시티 UNIVERSAL ACTION NOW

* 2010년 제 18차 오스트리아 비엔나 (개최 예정)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2002년 국제기구의 목표였던 2005년까지 에이즈 자원 부족 국가의 300만 감염인에게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표(3 by 5) 역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HIV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1년~2007년 사이 6배 정도 증가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도, 에이즈 예방 치료 자원에 대한 접근성은 전 지구적으로 공평하게 배분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2007년 말 기준으로 에이즈 치료가 필요한 감염인구 중 31%정도만이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치료가 필요한 감염인 3명 중 1명 꼴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전 세계 감염 추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러시아, 독일, 호주 등지의 감염율이 증가하고 있어 에이즈 유행 지역이 새로운 곳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도 큰 문제이다. 이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에이즈 개입 활동이 에이즈 확산의 예방에만 치중하고 있는 탓에 HIV 감염인/AIDS 환자에 대한 권리 개선이 비흡하여 잠재적인 감염인들이 에이즈 검사를 기피하고, 감염된 것을 확인한 사람들 역시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에이즈 전파가 지속되는 악순환

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행사는 약 175개국에서 2,5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취재진은 2,000명에 달했다. 자원봉사자 2,000여 명이 행사장 곳곳에서 참가자들에게 행사장 정보와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 행사를 앞두고 1만 여 건이 넘는 연구 개요들이 제출되어, 행사 기간 동안 각종 세션에서 발표되고 전시되었다.

지난 몇 회의 대회를 거치면서 젊은이들의 국제에이즈대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과 장학 기금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반영하듯 미래의 리더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다양하고 살아 움직이는 참여(춤, 즉석 토론, 퍼포먼스 등)를 보여주었다.

이번 대회에서 뜨거운 관심 속에 다뤄진 주요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복합적 예방 전략 (prevention cocktail (= drug cocktail))

에이즈 치료에 있어 삼제 병용 요법(카테일)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실제 에이즈 예방에서도 복합적인 에이즈 예방 전략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정확한 에이즈 정보 제공(Information), 안전한 성의 실천 또는 행동 변화(Safe Practices) 그리고 효과적인 에이즈 치료



1패미돈 위그스 2싱가포르 유형 3'War' 참가자 정보 사원 공유 공간 4여성문제와 HIV/AIDS 퍼포먼스

(Treatment)의 병행 전개를 의미한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에이즈 예방 개입 전략은 언론 홍보, 에이즈 예방 교육, 콘돔 무상배포, 에이즈 익명검사, 성병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수직감염 예방 프로그램, 성매매·동성애 그룹 특화 프로그램, 마약 사용자의 위험 감소, 감염인의 안전한 성 실천, 혈액안전 보장 등의 방법 등인데, 이러한 전략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때 에이즈 예방 사업의 효과성이 더 보장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지점은 에이즈 감염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치료와 지지가 에이즈 예방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감염인이 꾸준히 치료 받고 지지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건강을 잘 돌볼 때 이들의 안전한 성도 보장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에이즈 전파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UNAIDS의 보고서에 따르면 포경 수술을 한 남성이 요로감염증, 매독, HIV에 걸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점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성애자 남성에게 있어 포경은 에이즈 감염 위험을 낮춰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실례로 남아프리카, 케냐, 우간다에서 실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경을 한 남성 이성애자의 경우 에이즈 감염 위험이 50~60% 가량 낮아진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으로 남성 포경은 트리코모나스 감염과 인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 위험을 낮춰주는데 이는 포경을 한 남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여성에게 HIV/HPV 감염을 비롯한 감염성 질환이(HPV는 여성 자궁경부암의 주요 요소로 밝혀져 있음) 낮다는 점에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남성포경은 남성에게만이

Positive Prevention의 의미와 기본 원칙

의미	기본 원칙
감염인의 성건강 보호	인권 보호, 권리 향상
감염인의 성인성 감염질환 예방	감염인의 참여
감염인이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이행되는 것 예방	에이즈 예방의 책임 공유(감염인/비감염인)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감염인으로부터 타인에게로의 전파 예방	다양성 존중

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즉 이것만으로 상대방 여성 파트너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남성의 안전한 성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병행될 때 포경이 더 좋은 효과를 지닐 수 있다는 의미이다.

남성 포경에도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는데, 포경 수술 후 몇 주간은 에이즈 바이러스 노출되었을 때 취약해 지므로 수술 당사자는 이점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남성 포경을 저해하는 심리·사회·문화적 편견을 넘어야 한다. 성기 귀두부의 포피를 벗겨낸다는 심리적인 충격과 이것으로 인해 성적인 민감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어떤 면에서는 포경을 하면 앞으로 에이즈에 걸릴 일이 없을 것이라는 '실감한 미신'도 문제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기 변화(포경)뿐만 아니라 머리(행동)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예방의 실천이 중요하다.

Positive Prevention

HIV 검사를 주요한 에이즈 정책으로 채택할 때, 이러한 검사 정책을 통해 발견된 감염인의 건강한 삶과 에이즈 추가 전파 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염인을 위한 보호, 치료, 예방 프로그램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에이즈 감염 가능성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콘돔 없는 성관계를 갖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처벌, 특히 결과적으로 감염이 일어나지 않은 성관계에 대한 처벌 모두 포함), 또는 감염인의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에이즈 예방 효과

를 거두고 있는지는 재평가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감염인이 파트너에게 콘돔 사용을 요구해도 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파트너에게 감염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감염시키려고 했다고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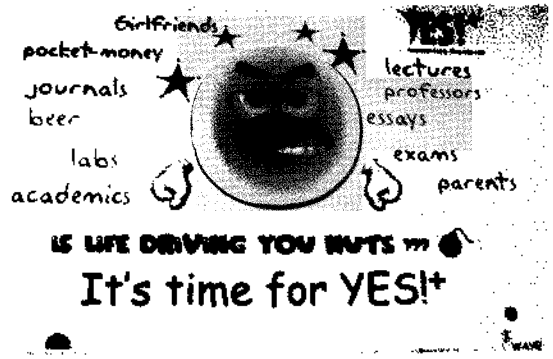
진밀한 관계 속에서 파트너에게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리는 문제를 감염인만의 의무로 설정하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에이즈 전파 예방의 책임을 자신의 감염사실을 알고 있는 감염인에게만 부과시켜서는 안 되며, 감염인의 비감염인 파트너, 혹은 그 누구라도 자신의 잠재적인 에이즈 감염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평소 에이즈 예방을 실천하도록 하는 예방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성용 콘돔_페미돔

여성용 콘돔이 개발 보급된 지 15년. 그동안 자신의 에이즈 감염을 오로지 남성 파트너의 선택에만 기댔던 시절을 보냈다면, 이제는 여성들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실천(에이즈, 성인성 감염, 원치 않는 임신 예방)을 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성관계 전·후로 자신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페미돔을 쓸 수 있는 조건에 있는 여성들이 그리 많지 않다. 여전히 페미돔에 대해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은데, 실제로 페



1 여성대회 팸플릿 2 건강한 성 홍보 포스터

미동의 생산은 남성용 콘돔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 (생산량 - 콘돔 : 페미돔 = 467:1)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에이즈 예방과 치료에 투입되는 펀드가 효과적으로 배분되지 못한 결과 일 수 있으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페미돔의 효능에 회의적인 사람들의 견해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으며, 여성 스스로가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임파워' 되는 관점에 대해 심기가 불편해지는 보수적인 경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에이즈 감염의 여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에이즈 감염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현 단계에서 그 효능이 확인된 여성용 콘돔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에이즈 백신의 개발과 에이즈 항생물질(Microbicide)의 개발에 비용을 들이는 만큼 여성용 콘돔 보급에 힘써야 한다.

수직감염 예방_ 유아용 유동식 vs 모유 수유

출산 후 처음 6주간 모유를 먹이 경우 수직감염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그래서 감염된 임산부의 모유를 대신해서 유아용 유동식을 먹이는 것이 에이즈 전파 위험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채택되고 있다. 하지만 모유 수유가 1세 이전의 유아들을 다른 질병 감염으로 막아주는 작용을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 유동식을 먹이는 경우 질병 감염,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1세 이하 유아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의 모유에서 바이러스 수치를 감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감염된 임산부에게 태어난 아동의 생존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채택되고 이기도 한다. 이문제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감염된 산모가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커뮤니티 내 사회·문화적 압력도 문제와도 관련이 있어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 밖에 에이즈 치료제의 부작용, 동성애·성매매 등 취약 집단의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관련한 사안들이 심도있게 다루어 졌다.

이번 행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최초로 치러진 국제에이즈회의라는 이름에 걸맞게 지역출신의 참여가 활발했으며, 그에 해당하는 다양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에이즈 문제가 단순한 질병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식성과 부의 재분배 과정에서 더욱 더 풀어나가기 어려운 전 인류의 과제로 부상되고 있는 시점에서 에이즈 문제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중미·남미와 캐리비언 지역에서의 개최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